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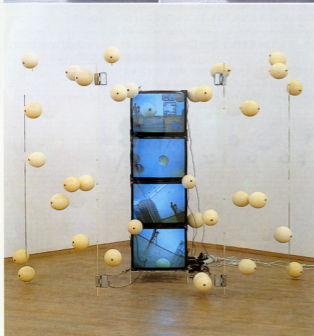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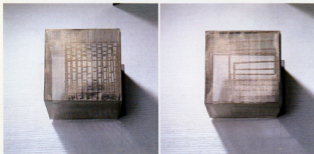
## 우리를 훑어보는 은밀한 시선과의 게임

우리를 훑어보는 은밀한 시선과의 게임

어느 적막한 오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OO아빤이집이요? OO호 통하고 2학년 1반에 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낯선 목소리다. 그러나 그는 가족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막힘없이 말을 건넨다. 놀랄지도 그는 아기가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의 친구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 갑자기 온몸이 서늘해지면서 땀방울이 떨어진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둘러쳐지고 견고한 철문만 달린 아파트 공간도 그를 피할 수 없는 듯하다. 어찌면 소파 한구석, 벽 한 모퉁이에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보일 관아사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아이의 인종과 장래를 걱정하는 듯한 무드되고 친근한 그 목소리는 갑자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미래까지 대를 조종하는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처럼 오후를 무겁게 짓누른다.

**숨어 있는 눈, 통제의 공간** 서해영의 작품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시선에 의한 통제가 맞아내는 불안운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장에 들어선 관객은 네 개의 모나터를 받아 만든 스크린 앞에 무심코 다가간다. 그러나 우리 모나터를 돌아다보는 순간, 자신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한다. 관객은 갑자기 복병처럼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린다. 그러나 관객이 찾던 카메라는 보이지 않고 관람객에 투영된 이리될 만큼 그늘고 나온 동그스름한 타조 알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음을 발견한다. 허공에 울동 떠 있는 듯한 그 타조 알 안에 작은 눈구멍 같은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알은 너무나 많아 렌즈가 숨겨진 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숨겨진 렌즈는 관객의 곤혹스러워하는 이 순간이라도 고스란히 포착한다.

작 : (Sindae) 김지희·우지 1999  
 04대 (Sankun) 30-1 C/P/NP/4 03월 1999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서해영의 집도 마찬가지다. 벽을 크기의 깊은 태두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그의 집은 언뜻 보기에 주택의 발간 벽돌집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벽은 우리를 감춰줄 수도, 숨겨줄 수도 없는 반투명 한상수자다. 외부의 시선을 피해 서로 맞닿아 있는 방을 따라 도망치듯 인으로 돌아다니면 방은 끝내 황량한 외부로 다시 우리를 이끌어나고, 언더에 있는 방들 그 어디에도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전시장 한쪽 구석에는 같은 반투명 한상수자로 만들어진 십자줄이 아무렇게나 마룻바닥에 놓여져 있다. 한쪽 면이 틀어지고 팔과 다리를 집고 앉으면 꼭 맞을 것 같은 상자는 어릴 적 몇 시간이고 숨어 있던 어두운 좁은 벽장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거기 속의 벽장과는 달리 우리의 몸은 반투명 벽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어두운 우물을 새우고 고개를 넘어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수 없다.

시선에 의한 통제가 높아지면 벌어지는 서해영의 전시공간은 낯익은 일상의 경험과 기억을 환기시킨다. 우리는 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은행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도 우리는 늘 보여지고 찍힌다. 한글 만들기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으며 백화점의 슈퍼마켓에서도 손동작, 불안한 눈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 끊임없이 감시되고 찍혀지는 우리의 모습은 수많은 정보로 컴퓨터에 입력되며,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의 가족의 신상뿐 아니라 줄어가는 옷의 상표와 자주 가는 음식점은 어디라는 가장 사적인 취향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 노출된 우리의 몸** 우리 사회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구분은 없다. 서해영이 만든 불안정한 그 집과 스크린처럼 우리 몸을 숨길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사회가 정보화되면 사선과 정보에 의한 통제는 더욱 정밀하고 치밀해진다. 문명의 상징인 인터넷과 카메라는 낯의 밖 안을 훑어보는 용용한 도구로 이 사회를 관공중간인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우리는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졌던 어느 여배우의 성생활을 안파스로 보았다. 추적하는 호기심과 눈물을 피해 꼭꼭 일러낸 공간에서 행해진 그녀의 성을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보았다. 그리고 지난해 뉴스에 그녀의 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떠돌았다.

그러나 왜 그 사실을 들여다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자는 폭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나. 더불어 그 여배우의 성을 이야기할 때 느끼는 아랫한 흥분이 무엇인지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 흥분이 타자를 정보와 시선으로 지배하는 관공중간인 권력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 역시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서해영이 연출한 전시공간에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게임이 숨바꼭질처럼 일어난다. 시선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훑고 있으며 집 안에서 우리는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듯한 낯선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은밀한 방 안으로 숨어들었던 그 여배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고 기록된다. 사적인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사적인 공간이란 안전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환상일 뿐이다. 서해영의 전시는 어디를 가든 감시하는 눈들이 있고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김없이 단파하는 피시공적인 통제가 일상으로 자행되는 우리의 삶을 연출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오후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의 전시장은 그래서 알 수 없는 불안과 서늘함이 감돈다.

[작품: 이윤서]

1997년 서울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2002년, 백화점미술관 전시. 백화점미술관 - 이화여자대학교 후원.

작 : (Sindae) 작 18×18×18cm 스테인레스스틸 1999  
 04대 (Sankun) 30-1 C/P/NP/4 03월 1999